



2011  
꿈나무작가 공모전  
수상 작품집



태백문화원

후원 |



태백시



태백시의회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2011  
꿈나무작가 공모전  
수상 작품집



태백문화원

후원 | 태백시 태백시의회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태백문화원장  
김 강 산

**태백** 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선택받은 땅입니다.

해발 800~700m의 쾌적한 환경과 맑은 물 깨끗한 공기가 우리의 삶을 활기치게 합니다. 거기에다 국토의 뿌리 땅으로 강과 산의 시발이 되니 낙동강 한강 오십천의 발원지이며, 백두대간과 낙동정맥이 갈라져 산삼태극, 수삼태극이 되는 국토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태백의 꿈나무들은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아갈 위대한 사람으로 자라날 것을 확신합니다.

태백산의 밝은 정기와 검룡소와 황지에서 솟는 푸른 기운이 꿈나무들을 감싸고 힘을 북돋을 테니까, 이 땅 태백에서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미래가 양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

심호흡을 하고 눈을 크게 뜨고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목표는 세계를 아우르는 큰 그림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태백의 정기를 받은 여러분은 해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출품한 많은 꿈나무작가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그들의 장도를 축하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애써주신 태백교육지원청의 홍종배 교육장님께 감사드리며, 각 급 학교의 담당 선생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 축사



**존경** 하는 태백교육가족 여러분!

여름방학을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태백 교육이 생동하는 곳곳마다 만족과 가슴 벅찬 즐거움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2011 꿈나무작가공모전」에 참가한 134명의 모든 학생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수상한 모든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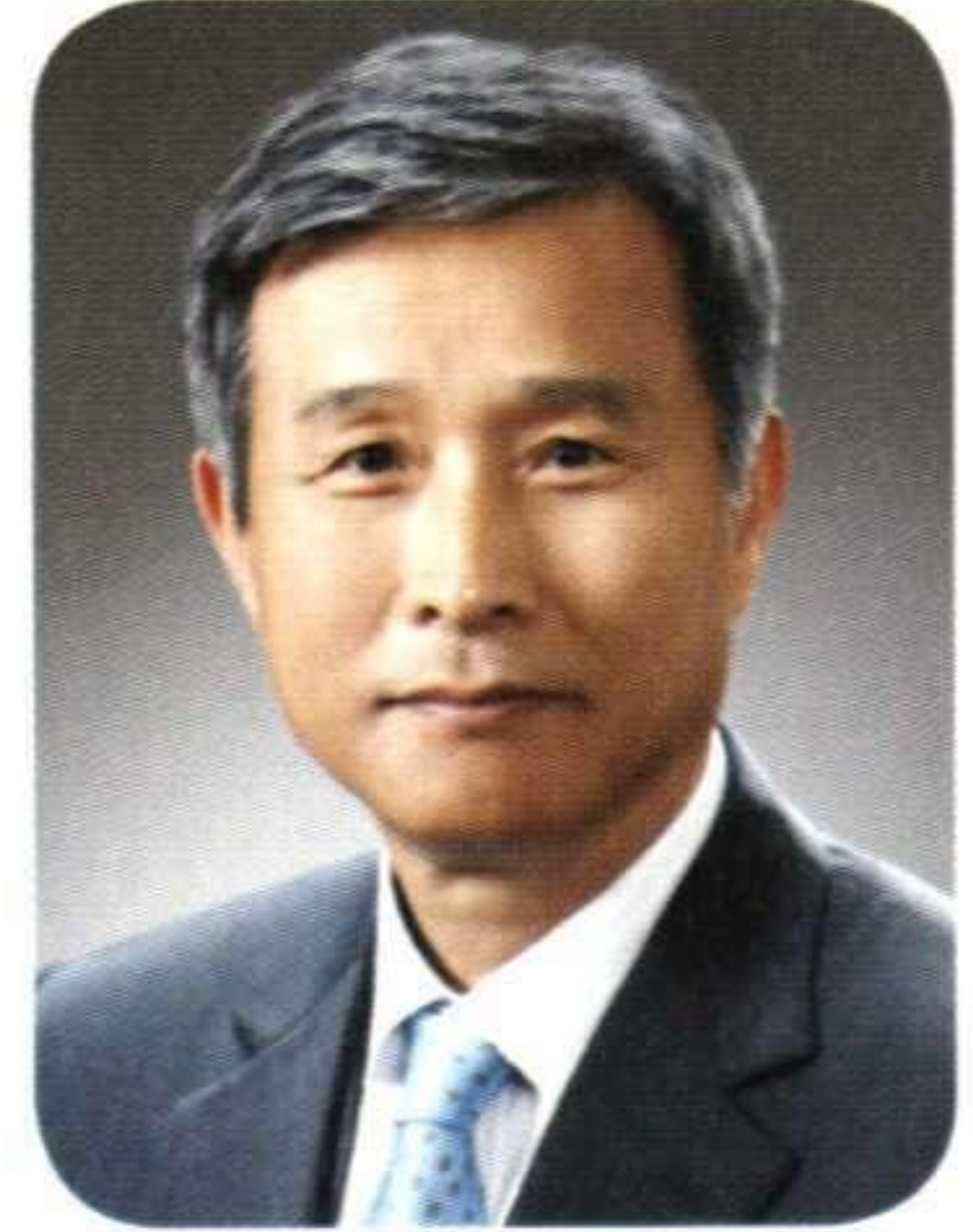
또한, 매년 꿈나무 작가공모전을 통해 학생들에게 글쓰기 문화를 장려해 주신 태백문화원 김강산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그 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학은 울고 웃고 부대끼는 우리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당대의 역사와 시대를 생생히 알 수 있게 해 주며, 진정한 삶에 관해 성찰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실을 바라보고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조리있게 말하고 글로 쓰며, 그림으로 나타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또렷하게 말과 글, 그림으로 나타낼 줄 아는 사람은 살아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공동체를 위하여 공헌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바르게 나타낼 줄 아는 표현력을 길러야 합니다. 특히, 글쓰기는 모든 교육활동의 기본이면서도 핵심 요소이며 창의적 사고활동의 기본으로서 학생들의 잠재된 능력을 계발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필수요소이기도 합니다.

미래 시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학업에 정진하는 가운데서 글쓰기를 통하여 남다른 창의성을 발휘하는 모습은 건전한 청소년 문화의 영역에 새로운 지평을 넓히는 것이기에 자랑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영예의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마음을 전하며 「2011 꿈나무 작가공모전」을 통해서 태백 청소년들이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태백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문단을 더욱 풍요롭게 할 미래의 작가들을 배출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종배**





|                               |   |
|-------------------------------|---|
| 발 간 사 / 태백문화원장 김 강 산 .....    | 2 |
| 축 사 / 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 홍 종 배 ..... | 3 |

## ■ 초등부 저학년

### | 최우수상 |

|                                  |   |
|----------------------------------|---|
| 내 친구 장미 / 황지중앙초등학교 1-3 권주은 ..... | 9 |
|----------------------------------|---|

### | 우수상 |

|                                  |    |
|----------------------------------|----|
| 아름다운 황지연못 / 황지초등학교 3-2 권영주 ..... | 10 |
| 키다리 해바라기 / 태백초등학교 3-1 이재영 .....  | 11 |

### | 장려상 |

|                                     |    |
|-------------------------------------|----|
| 태백산 등반 / 황지초등학교 1-6 김민영 .....       | 12 |
| 줄줄이 거미 / 태백초등학교 3-1 홍지현 .....       | 13 |
| 엄마는 나의 대선배 / 황지중앙초등학교 1-2 차명근 ..... | 14 |

## ■ 초등부 고학년

### | 최우수상 |

|                            |    |
|----------------------------|----|
| 운동장 / 황지초등학교 4-5 김예진 ..... | 19 |
|----------------------------|----|

### | 우수상 |

|                                    |    |
|------------------------------------|----|
| 감자 캐기 / 통리초등학교 6-1 이민해 .....       | 20 |
| 우리 동네 이야기 / 황지중앙초등학교 5-3 김민성 ..... | 21 |

### | 장려상 |

|   |    |
|---|----|
| 태백의 사계절 / 태백초등학교 6-1 임예은 .....            | 23 |
| 방터굴 이야기 / 동점초등학교 5-난초반 유지현 .....          | 24 |
| 우리작고 예쁜 동네 철암을 소개해요 / 철암초등학교 6-1 장연 ..... | 28 |







## ■ 중등부

### | 최우수상 |

'우리 형' 을 읽고 / 철암중학교 1-1 한규빈 ..... 33

### | 우수상 |

'손도끼' 를 읽고 / 철암중학교 3-1 원성일 ..... 35

그 곳을 아시나요? / 황지여중학교 2-3 노주리 ..... 36

### | 장려상 |

행복에 이르는 길 / 철암중학교 3-1 성다예 ..... 38

여행은 사람이다 / 철암중학교 3-1 김해성 ..... 40

## ■ 고등부

### | 최우수상 |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은 / 장성여자고등학교 3-5 이한솔 ..... 47

### | 우수상 |

느껴지는 마음 / 장성여자고등학교 3-6 이상희 ..... 49

검은 자식과 부모님 / 황지고등학교 2-2 김태기 ..... 51

### | 장려상 |

철암 / 황지고등학교 2-2 원형일 ..... 52

자연이란 이름의 연극에서 / 장성여자고등학교 2-3 심정희 ..... 53

그때도 알았더라면 / 장성여자고등학교 2-6 이수미 ..... 54

심 사 평 / 한국예총 태백지회장 전 은 영 ..... 56









# 초등부 저학년











## 내 친구 장미

황지중앙초등학교 1-3

권 주 은

내 친구 장미  
하하하 웃으면

나도 하하하  
따라 웃지요

내 친구 장미  
손 흔들면  
나도 나도  
손 흔들지요

할머니도 예쁘다  
만져주시고,  
우리 동네 애기도  
만져 보내요

언제나 웃으면  
반겨주는  
나의 좋은 친구







## 아름다운 황지연못

황지초등학교 3-2

권영주

연못바닥이 흰히 보이는  
마음씨 고운 물  
미꾸라지가 미끄러지듯이  
매끈하게 흐르는  
황지연못 물줄기

티끌 하나 없는 연못에서  
열목어, 금붕어, 연어  
알록달록 물고기가  
오순도순 살아가지요

빨강, 파랑 솜사탕이  
연못 주위에서 두둥실  
연못 밖 포장마차에는  
고소한 냄새 폴폴

사람들이 모여  
정답게 이야기 나누는 곳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

쉬었다 가는 곳  
아이들이 바글바글 모여  
뛰어노는 놀이터

찾아갈 때마다  
쫄로롱 물소리  
따스한 나무 의자로

말없이 반겨주는  
황지연못







## 키다리 해바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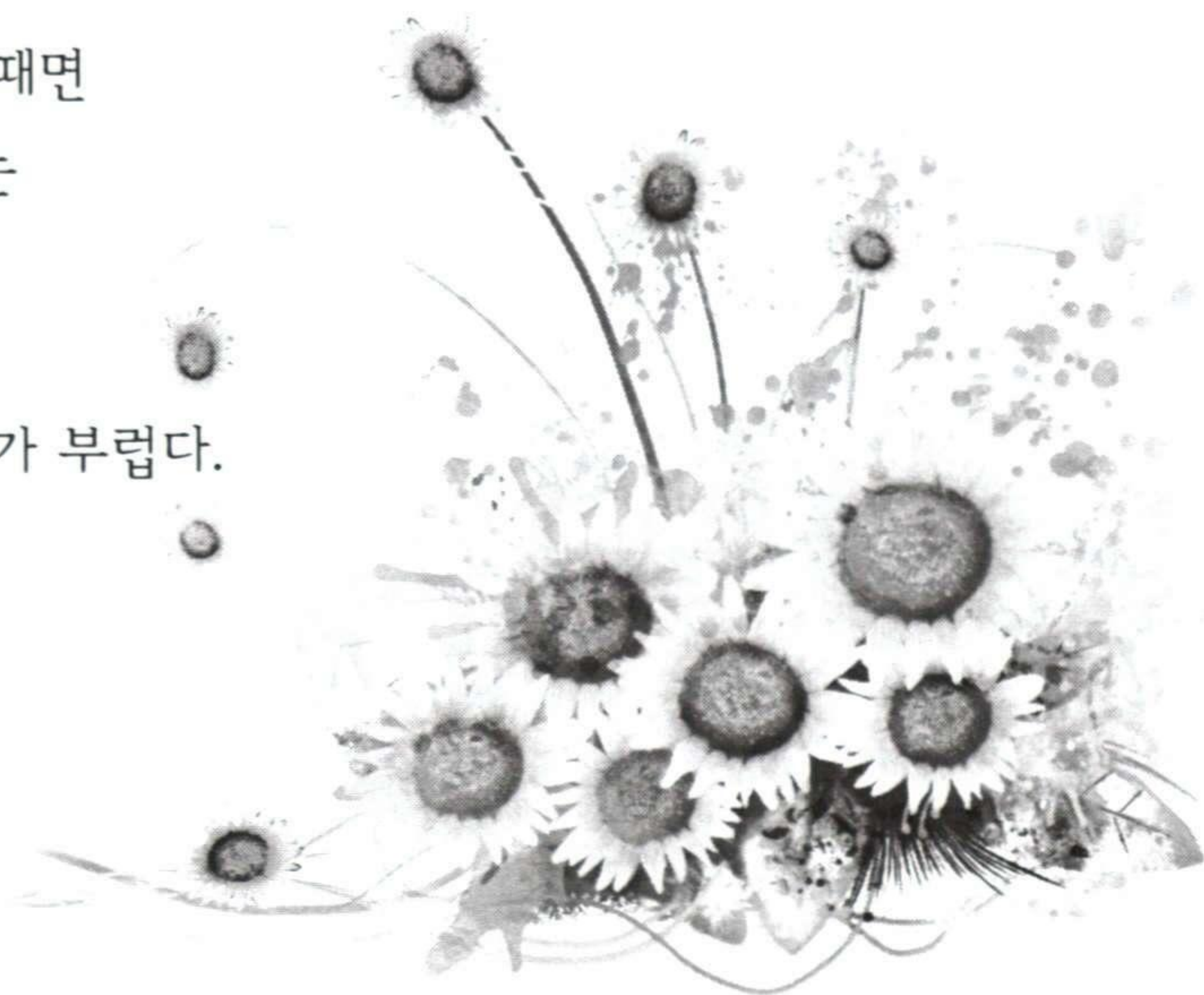
태백초등학교 3-1

이재영

해바라기는 키다리  
나는 난쟁이  
쑥쑥 운동해도 따라잡지 못하는  
키다리아저씨 해바라기

해바라기 아저씨  
키가 커서  
오늘도 나와 키 시합을 벌인다.

해바라기 그늘 더울 때면  
서서히 빛을 가려주는  
해바라기 그늘  
  
나는 키 큰 해바라기가 부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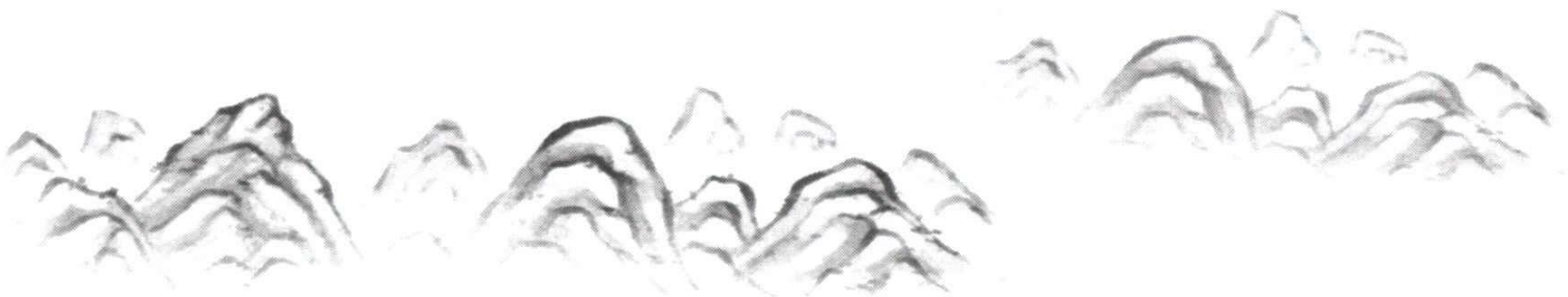


## 태백산 등반

황지초등학교 1-6

김민영

우리 학교는 해마다 전교생이 내 고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태백산 등반을 한다.  
 태백산 등반을 한다고 했을 때 나는 걱정이 많이 들었다.  
 왜냐하면 나는 걷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침마다 나는 아빠랑 걸어서 학교에 가는 연습을 했다.  
 버스를 타고 백단사에 도착해 우리들은 태백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우리는 1학년이라 태백산 중간인 반재라는 곳 까지 올라간다.  
 엄마와 손잡고 올라가는 길이 힘이 들어 숨이 차고, 다리도 아프고 배도 많이 고프고  
 목도 말랐지만 반재에 올라 친구들과 같이 김밥을 먹을 생각에 힘이 생겼다.  
 산에 오르며 나무에서 나오는 공기를 마시니 기분이 상쾌하다.  
 태백산이 우리 고장에 있어 나는 너무 좋다.  
 내년에도 나는 열심히 태백산을 올라갈 것이다.







## 줄줄이 거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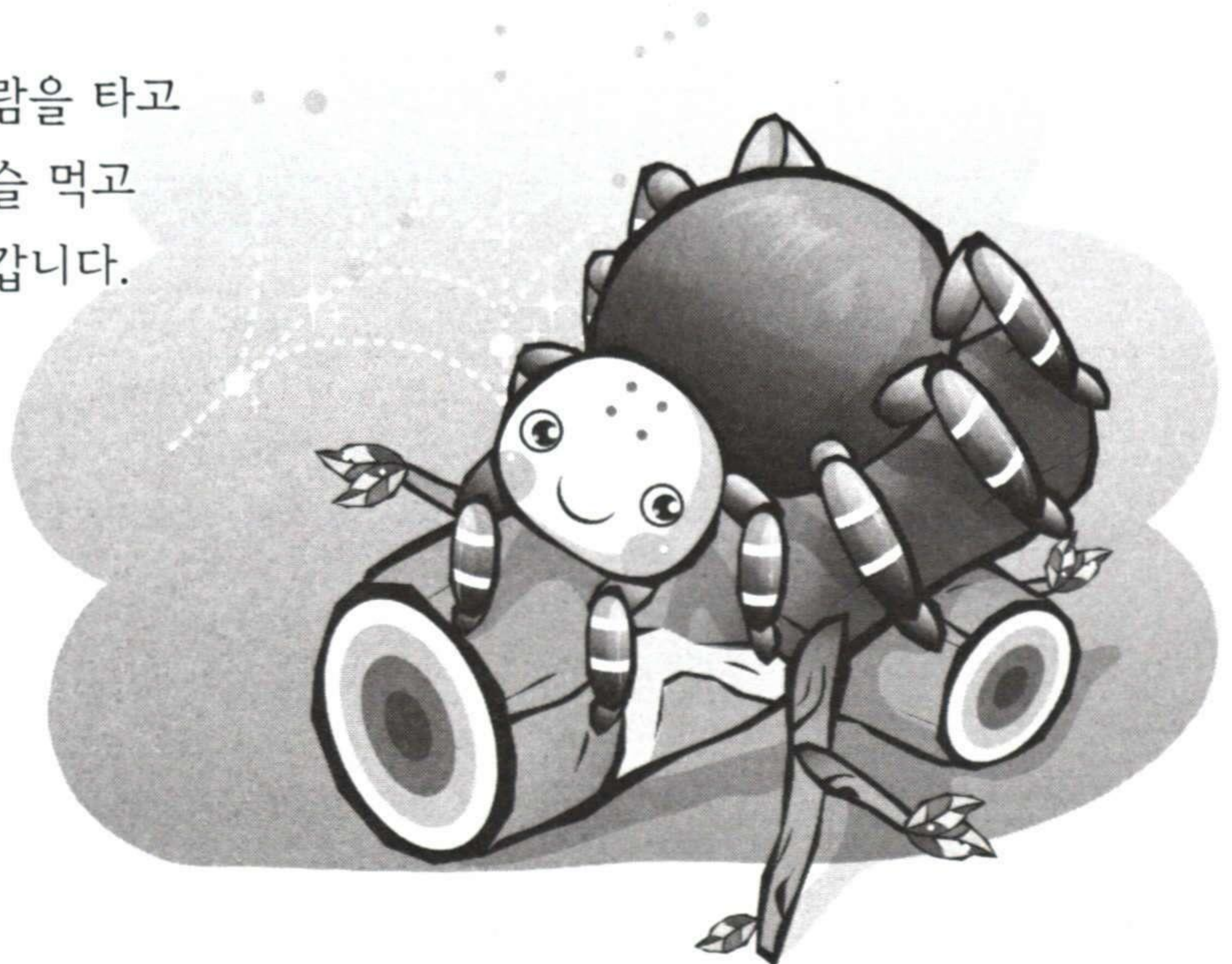
태백초등학교 3-1

홍지현

거미줄 한구석에  
대롱대롱 매달려 흔들리는  
동그란 집

집 속에  
동그란 집 속에서  
줄줄이 거미 줄 줄줄 나와

시원한 아침 바람을 타고  
깨끗한 풀잎 이슬 먹고  
멀리 멀리 날아갑니다.







## 엄마는 나의 대선배

황지중앙초등학교 1-2

차 명 근

나는 우리 집 늦둥이 이다.

우리 엄마가 나를 늦게 낳아서 형, 누나들은 나하고 나이차이가 많이 난다. 내가 태어난 곳은 서울이다. 우리 가족은 내가 5살 때 엄마 고향인 태백으로 이사를 왔다. 이곳은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살고 계신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내가 엄마 손을 잡고 따라 간 곳은 황지중앙 병설유치원 이었다. 지금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현장학습으로 태백산을 올라갔다. 힘은 들었지만 개나리꽃과 커다란 나무들이 너무나 많았고, 분홍 꽃도 많아 예뻐다. 나는 태백이 좋다. 왜냐하면 내가 다니는 이 학교는 우리 엄마가 다녔던 곳이다. 그러니깐 우리 엄마는 나의 대선배님이다. 처음 8살이 되어서 학교 입학할 하던 날 엄마는 "명근아~ 엄마도 이 학교를 졸업했어. 그러니깐 넌 나의 후배님입니다" 하고, 나는 "대선배님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대답했다. 엄마와 나는 깔깔대며 웃었다. 강당에 들어서서 2반줄을 찾아보니 선생님 얼굴이 보였다. 나처럼 조금 통통하시지만 얼굴은 예쁘고, 머리는 단발머리였다. 기분이 너무 좋았다. 입학이 끝나고 교실로 왔다. 내일부터 나는 유치원이 아닌 내 자리가 있는 교실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착한 명근이가 되어야지!" 하고 생각했다. 다른 학교는 흙먼지 날리고 넘어지면 무릎을 다치곤 하는데 난 이 넓고 푸른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우리학교가 너무 좋다. 얼마 전에는 우리학교에서 총 동문체육대회를 하였다. 난 엄마 손을 잡고 체육대회에 따라가 보았다. 우리가 했던 운동회와 비슷하지만 어른들의 체육대회는 너무나 웃겼다. 엄마의 체육대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엄마에게 말했다. "나도 어른이 되면 저렇게 체육대회를 할 수 있을까?" 하고 물었다. 엄마는 "그럼 네가 커서 체육대회 할 나이가 된다면 엄마는 이 세상에 없겠지"하며 씩~웃으셨다. 이



렇게 공기 좋고, 산소 많은 태백에서 엄마와 할머니, 형, 누나랑 오래오래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에 나는 순간 어른이 되는 것이 싫었다. 우리 엄마는 지금 많이 아프다. 계속 병원에 다니신다. 태백에 이사 온 이유도 엄마가 아프기 때문에 공기 좋은 곳에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엄마에게 민들레도 뜯어다주고, 운동도 같이 한다. 내가 다니는 우리 학교 또 우리엄마가 다녔던 이 학교가 너무 좋다. 나는 우리학교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축구도 잘하고, 엄마가 그러셨다. 우리학교에서 이을용 축구국가 대표도 배출한 학교라고 하셨다. 나는 축구는 못하지만 열심히 공부하여 이을용 선수처럼 유명하고 멋진 의사가 될 것 이라고 꿈을 꾸면서,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학교를 다닐 것이며 앞으로 나는 산나물과 푸른 하늘과 산과 나무도 많은 이곳을 내가 커서도 오염되지 않도록 잘 지키고, 우리학교 이름을 빛 낼 수 있도록 나는 엄마이자 대선배님에게 손가락을 걸며 약속을 하였다.









# 초등부 고학년











## 운동장

황지초등학교 4-5

김예진

동그랗게 늘어선 벚나무 아래  
 옹기종기 모여든 아이들  
 재잘재잘 무엇이 재밌는지  
 까르르 까르르 배꼽 잡네.

동그란 흙먼지 운동장에선  
 서로 먼저 공을 차려고  
 땀이 비오는 줄도 모르고  
 친구 뒤를 쫓아가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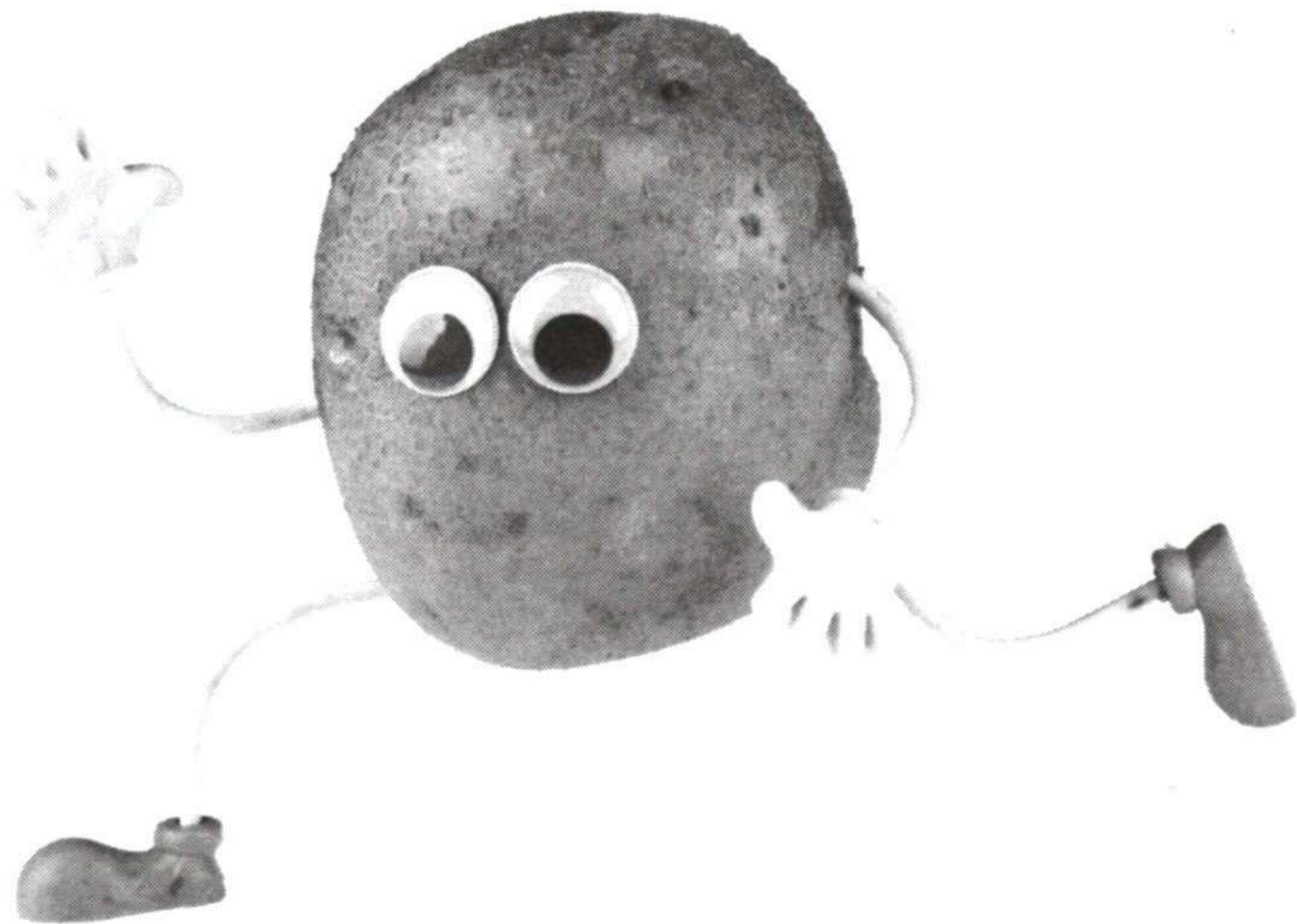
## 감자 캐기

통리초등학교 6-1  
이 민 해

날카로운 호미를  
한 손에 쥐고  
마구잡이로 흙을 판다.

"심봤다."

내 주먹만 한 감자가 나왔다.  
고 녀석 아주 맛나겠다.







## 우리 동네 이야기

황지중앙초등학교 5-3

김민성

추억의 시절을 생각하며 우리 동네 이야기를 써 내려간다.

내가 태어난 곳은 수원이었는데 7개월 때 어머니의 고향인 이곳 태백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부모님의 일로 인해 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와 사슴농장에서 살게 되었던 추억을 떠올린다. 그곳은 태백시청 맞은편 산속 골짜기 이었다. 할아버지가 사슴을 키우셨기 때문에 그곳은 움막집처럼 할아버지께서 손수 지으셔서 사는 곳이었다. 보일러 시설은 없기 때문에 장작으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물을 데워서 쓴 기억이 난다. 주위의 산에 자라는 풀과 사슴... 전원생활 그 자체였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일하시던 모습을 떠올릴 때면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 눈물이 가슴을 젖게 만든다. 3학년 때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밥 빨리 먹기 대회도 하고, 할머니 옆에 주무시지도 못하게 투정도 부렸던 기억은 이제 추억으로 그리워해야만 한다. 어머니가 언젠가 말씀 해주셨다.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이 내가 그곳에 산다고 하니 "민성이는 산속에 살고 있으니깐, 숫자 1, 2, 3도 모르겠어요."라고 ㅋㅋ 아이들이 깔깔거렸던 이야기를 들려 주셨다. 그 후로 어머니는 내가 유치원 갈 나이가 되자 유치원은 잠깐 보내시고 웅변학원을 보내셨다. 산속에서 친구들은 강아지, 사슴, 닭, 거위 그리고 수많은 식물들이였고, 나이가 많은 신 할아버지 친구 분들이 친구를 대신 해 주셨기 때문에 어머니는 걱정이 되셨던 것 같다. 처음 웅변대회에 나가서 좀 어리둥절했던 기억이 난다. 장소가 문화예술회관 이었는데 처음 가보았고 관중들도 많아서 내 웅변인 차례에 그만 울음을 터트리기도 말았다. 하지만 어미님께서는 어린 나이인 저에게 다음 기회에는 잘 할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을 주셨다. 한해가 지나갈수록 난 용기가 생기고 관중들 앞에서 차츰차츰 자신감으로 웅변을 할 수 있었다. 1학년 때는 중국에 가서 조선족과 함께 경



합을 해서 통일부 장관상도 받아온 영광과 학교의 모든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금은 전교 부회장의 일도 하고 있다. 만약 산속에서 살지 않고 도시에서 살았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고추밭에서 고추노래 부르고, 호박, 오이 밭에서 호박, 오이 노래 불렀던 도심 속의 산속은 영원히 잊히지 않을 것이다. 사슴들에게 풀을 주고 닭들을 보러 갔다가 달에게 쫓여서 울었던 일... 여름이면 개울에 가서 가제를 잡다가 가제에게 손을 물린 일 등. 생각해보면 난 다른 친구들보다 마음의 부자이다 는 생각에 흐뭇한 미소가 번진다. 할아버지가 사슴 키우셨던 곳이 내가 글을 써서 알려지면 좋겠다. 할아버지 집은 절 골이란 동네에 단독주택이 또 한 채가 있었다. 난 초등학교를 입학하게 되어 이곳 절골에 왔다. 난 절골이란 이름이 이상해서 "할머니 왜 동네이름이 절골 이예요?" 하고 여쭙어 보았더니 옛날 옛날에 작은 절들이 많아서 절골이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하셨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은 어머님 나이가 42살이신데 어머님 2살이었을 때 오만 원을 주고 사셨다고 한다. 참으로 오래된 집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에 또 가슴이 벅찼다. 절골은 TV에 나오는 시골의 풍경처럼 이웃들을 서로 배려해주시고, 아침 일찍 동네를 빗자루로 쓰시는 할아버지, 아이들은 항상 쾌활하며 이웃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 잘하는 동네의 자랑거리이다. 한 여름이면 개울에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도 인상적이다. 절골 동네는 여름이면 집집마다 땅을 보듬어 텃밭을 만들어 고추, 옥수수, 상추, 파, 깻잎, 방울토마토 등 식물들을 많이 키운다. 그 식물들을 보면서 난 매일 등교를 하는데 그때마다 산속에 살았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며 다른 친구들보다 학교 가는 길이 즐겁고 마음이 따뜻해진다. 태백도 아파트가 많지만 그곳의 친구들보다 난 풍요로운 자연과 더불어 지금도 살고 있기 때문에 절골이란 동네에 살아서 자랑스럽다. 내 나이가 30년 후에도 절골이란 마을이 없어지지 않고, 아파트도 들어서지는 일이 없는 것이 나의 바램이고, 작은 소망이다. 꼭 어떤 분야든 성공한 사람이 되어서 절골에 많은 기부를 할 것이다. 노인복지시설과, 어린이 놀이터 등 생각하고 생각 할수록 가슴이 벅차 는 기쁨이다. 오늘밤도 절골 동네 사람들이 편안한 밤이길 바라며 나도 잠을 청한다.





## 태백의 사계절

태백초등학교 6-1  
임예은

봄의 태백은  
어린 새싹의 유치원생

여름의 태백은  
여러 곤충의 곤충학자

가을의 태백은  
알록달록 아름다운 그림

겨울의 태백은  
흰 눈의 할머니

태백에서만 볼 수 있는  
참 멋진 사계절







## 방터골 이야기

동점초등학교 5-난초

유 지 현

"따끈~따끈하고~아주 맛있는~북평 손 두부가 왔어요!"

거의 날마다 같은 소리로 찾아오는 두부 장사 차. 장사 멘트를 하도 많이 들어 다 외워 버렸지만 지겹다는 생각은 한 적이 없다. 이 곳 태백에 온지도 벌써 5~6년이 되었다. 어르신들께 인사를 잘하라는 아빠의 말씀에 열심히 인사를 한 덕분인지 요즘은 어르신들께서 나를 보시고는 말씀하신다.

"아이고, 많이 컸구먼...."

"이제는 엄마 만 하네..."

5년 전부터 나를 봐 오셨으니, 그런걸 느끼지 않으실 수가 없을 것 같다. 우리 동네에는 병환을 앓고 계신 할머니가 계신다. 그분 댁을 지나칠 때마다 보면 할머니께서는 집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계신다.

"안녕하세요?"

"오냐, 어디 가는 거냐?"

"슈퍼에 엄마 심부름이요."

"그래, 다녀와라."

이렇게 병환이 있으신 분들도 나를 손녀처럼 대해 주신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에 나는 우리 동네에서의 생활이 즐겁다. 학교 RCY에서 마을회관으로 봉사 포스터 활동을 하러 갔을 때 일이다. 회관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셨다. 노래를 하려고 했는데 준비를 하지 못해서 단가를 불렀는데도 박수를 쳐주시면서 즐거워하셨다. 청소를 하고, 인사를 드리고 가려는데 어떤 분께서 열심히 하는 우리들 모습을



보시고서는 아이스크림을 사다 주셨다. 늘 뵈던 분들이지만 그때 봉사 포스터 활동을 하고 나서 한 번 더 느꼈다. '우리가 조금만 고생하면 어르신들을 즐겁게 해 드릴 수 있고, 우리의 수고가 어르신들께는 큰 힘이 되었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랬던 활동이었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이 곳 태백에 온지 5~6년쯤 된 지금까지 내가 이 마을에서 겪었던 일들 하나하나가 지금까지도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고, 지금도 좋은 추억이라고 느껴지고, 앞으로도 나에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라고..

벌써 6월 중순이 다 되었다. 장성 쪽에는 장미가 많이 피어 있지만, 황지 쪽으로 가보면 피어 있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장성에 있는 장미는 햇빛이 더 일찍, 많이 들어서 장미가 많이 핀 것이고, 황지에 있는 장미는 햇빛이 늦게, 조금 들기 때문에 늦게 핀다는 것을 이곳 태백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 것이다. 만약 장성에 있는 장미를 도시, 서울이라고 치고, 황지에 있는 장미를 시골, 태백이라고 친다면, 도시는 단지 일찍 발달된 것 때문에 시골보다 더 발전된 것뿐이고, 시골은 늦게 발전되어서 조금 느릴 뿐이다. 장성과 황지에 피어 있는 장미들을 보면서 나는 황지에서 피어 있지 않은 장미들 가운데에서도 용케 피어 있는 장미처럼, 노력하면 누구나 시골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자연에게 우리들이 배우는 것의 양은 엄청난 것 같다. 나무, 꽃, 나비, 새 등등... 나는 자연에게 우리들이 배운 것만큼 우리도 자연에게 보답을 해주고 싶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환경 보호가 제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친가 분들과 외가 분들은 대부분이 도심 쪽에 사신다. 그래서 명절 때에 인사를 드리러 갈 때면 나는 태백에 관광 오셨던 분들이 하신 말씀이 새삼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걸 생각으로도, 몸으로도 생생히 느낀다.

"공기 좋고, 물 좋고 ..."

"여름에도 시원하네!"

반면, 도시는 어떨까? 매연에, 찌는 듯 한 더위에, 자연적인 강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기 힘들다.

'하의 실종 패션이 유행하는 이유 중 하나가 도시들이 너무 덥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장마철이라 그런지 요즘엔 태백도 덥다. 더운 것과 비를 싫어하는 나로서는 여름이 최악의 계절이다. 그렇지만 가끔씩 내려주는 단비는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어 주기



도 하고, 농작물들이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주니 비라는 건 적어도 안 되고, 많아도 안 되는 신비한 존재인 것 같다. 난 여름을 싫어하지만 모든 것에는 장. 단점이 있듯이 여름에 가는 수영장은 재미있다. 이곳에는 깊은 계곡들도 많아서 일부러 돈을 내고, 수영복을 사고, 수영장까지 가지 않아도 즐겁게 놀 수 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한다.

"뭐든지 적당해야 하는 거야. 적당한 것 보다 더 한건 덜 한 것만도 못 한 거란다."

난 이 말을 처음 듣고는 이런 생각을 했다.

'어떻게 더 한 게 덜 한 것보다 못하지?'라고.. 처음엔 그랬다.

그렇지만 경험을 통해 그 이유를 깨달았다. 우리 학교 재학생으로서 학교 안에서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을 친구들을 이끌어 주는 리더다. 그래서 난 우리 학교에서 나는 공부도 하지만 사람 관찰도 한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렇게 관찰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아이의 성격도 파악하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직접 겪지 않고도 느낄 수 있다. 어떤 때에는 직접 그 당사자에게 물어 보기도 한다. 그래서 그런 관찰의 결과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 나를 믿어 주고, 따라 주겠구나 하고 느낀다. 그리고 직접 행동으로 옮겨본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내 예상대로 친구들이 좋아했던 것이 기억이 난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사람이란 원래 다 그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을 보면 정말 답답한 사람이 있다. 자기 뜻대로만 하려다가 사람들이 따라 주지 않으면 짜증을 내고, 결국엔 다른 사람들까지 짜증나게 만드는 사람. 애초에 처음 시작할 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맞춰 나가면 될 것을 자기 혼자의 욕심으로 다 채워 버리는 것이다. 그게 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누구나 얼마든지 자기 욕심이 있고, 의견이 있는데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드는 사람은 결코 친구들 사이에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난 요즘에 하루하루가 즐겁다. 나이를 한 살, 두 살, 먹어갈수록 매사가 즐거워지는 것 같다. 그렇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뒤 따른다. 그래서 조금 힘들어도 내 일은 내 스스로 하려고 한다. 나중에 가서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더라도 말이다.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들, 선생님, 선후배 등 여러 사람들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서로를 믿고, 존중하는 태도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다. 난 나를 변화시키는 것에 노력을 쏟는다. 그 노력 속에서 변화하는 내 모습을 보



고 있으면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 이것도 다 내가 태백에 있기 때문에 받는 영향인 것 같다. 도시의 초등학교들은 한 반에 보통 3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다. 나이는 같아도 다 내 동생들처럼 보고 있으면 챙겨주고 싶어진다. 그게 단지 내 생일이 제일 빨라서 아닌 것 같다. 나는 친구들이 나를 의지하는 것을 가끔가다 느낀다. 그럴 때마다 나는 기쁘다. 왜냐 하면 그 모습이 초등학교 안에서의 내가 원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요즘 초등학생들 30명을 통제하고 이끌어 주는 건 웬만한 어른들도 힘들어 할 것 같은데, 이 곳 태백은 다르다. 태백이 아니면 이런 경험을 하기 쉽지 않다. 만약 내가 도시에 있었다면 피곤한 생활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할 생각도 하지 않았을 거고, 이런 생각을 할 시간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사람들은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라는 말을 사용한다. 어렸을 때에는 그런 말이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을 깨닫지 못했었다. 그렇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은 말이다. 그 세 가지 말을 채워줄 수 있는 말은 없을 것이다. 앞으로도 나는 나의 미래와 방터골 마을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살아갈 것이고, 더 나아가서 태백과 강원도, 더 크게는 우리나라, 세계의 미래를 책임지는 사람 중 한 사람이 되고 싶다.







## 우리 작고 예쁜 동네, 철암을 소개해요

철암초등학교 6-1

장 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태백시...

태백시에 있는 아름다운 작은 동네 이야기 한번 들어 보실래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의 이름은 '철암'이라고 합니다. '철암'이라는 뜻은 '철로 된 암석'이라는 뜻이에요. 철암은요 '상철암'이랑 '하철암'으로 나뉘지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인 철암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하여 남쪽으로 내려가면 하철암, 북쪽으로 올라가면 상철암이라고 구분합니다. 철암초등학교는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이름이에요. 철암초등학교는 철암에 있는 학교여서 우리 동네 어린이들은 전부 철암 초등학교에 다녀요. 우리 엄마, 아빠 중에서도 철암초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도 많고요. 그 만큼 우리 학교는 만들어진 지도 오래 되었어요. 그 동안 쌓인 추억과 역사도 깊다고 생각합니다. 반은 학년 마다 한 반씩 있어요. 4학년만 1반, 2반이 있어요. 학생 수는 적은 편이에요. 하지만 학생 수가 적은 만큼 모두가 얼굴을 익히고 친하게 지내요. 마치 가족처럼..우리 초등학교 제가 6년 동안 다녔던 초등학교예요. 저와 친구들의 추억이 담긴 학교입니다. 철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가 많아요. 그 중에 세 곳을 소개해 보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 장소는 우리학교 앞 구름다리예요. 이 구름다리를 처음 건너는 사람들은 아마 무서워 할 수도 있어요. 왜냐고요? 다리 밑으로 철암천 이라는 강이 흘러서 살짝 무서워 할 수 있어요. 철암천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철암천이 작년에 공사를 한 뒤 더욱 예뻐졌어요. 아마 가을에 울긋불긋 단풍이 들 때 관광객들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구름다리는 가을에 단풍이 물들 때 보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름다리를 다 건너시면 산이랑 연결되어 있는 산책 코스가 있어요. 나무의 향기를



말으면서 산책을 하면 아마 좋은 추억이 되실 거예요.

두 번째는 장소라기보다는 눈으로 보았을 때 좋은 아름다운 풍경인 바로 '미인 바위'랍니다. 미인바위는 정말 사람이 누워있는 모습 같아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저는 미인바위를 볼 때 깜짝 놀랐어요. 바위가 정말 산처럼 큰데, 마치 조각가가 조각한 듯 아름다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특히, 이 미인바위는 계절별로 보이는 모습이 다양해요. 봄에는 벚꽃 때문에 사랑에 빠진 느낌, 여름에는 무성한 초록잎 덕분에 싱그러운 청춘의 느낌을, 가을에는 단풍의 색 덕분에 왠지 모를 친근함을 전해주고, 겨울에는 하나, 둘 빠진 잎 때문에 춥고, 외로운 느낌과 수북하게 쌓이고 있는 함박눈의 영향으로 생크림을 바른 미인바위의 느낌을 줍니다. 미인바위는 이렇게 계절에 다르게 여러 느낌을 줍니다.

세 번째, 소개할 장소는 제가 자주 노는 곳인 상철암 놀이터입니다. 이 놀이터 덕분에 우리 학교 후배인 아이들과 많이 친해졌어요. 이 놀이터가 좋은 이유는 그네랑 아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네를 자주타서 이제 제법 높게 탈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거나 칭찬을 해 준답니다. 아이들이 있어서 하루하루 즐겁게 지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놀이터에 긴 의자가 있어요. 그 의자는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 의자는 나무 밑에 있어서 비를 피할 때도 좋고, 여름에는 태양 때문에 더울 때 의자에 앉아서 쉴 수도 있어요. 그 아래에서 올려다보면 나뭇잎 사이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너무도 신기하고 예쁘답니다. 의자에 앉아서 왼쪽 편을 보면 대칭이 잘 맞는 멋있는 나무가 한 그루 있고, 그 옆을 또 보면 한 아주머니가 잘 관리해 놓으신 예쁜 꽃밭이 있어요. 상상만 해도 너무 예쁘겠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 세 가지를 다 말해 보았어요. 그 밖에 짧게 말하긴 아쉽지만 잠시 소개를 하고 싶은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는 상철암 아파트의 옆인 철도아파트예요. 그 곳에 친구가 옛날에 살았는데 그 친구를 보러 매일 놀러 갔었어요. 아파트를 돌아다니다 보면 크기가 중간 정도 되어 보이는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무에 줄을 달아 놓아서 친구와 저는 그 줄을 그네로 만들어 그네를 타기도 했어요. 마치 동화 속의 그림처럼 말이에요... 또, 제가 매일 학교에 갔다 오면서 만나는 옥수수 밭이 있습니다. 혼자 살고 계시는 할머니께서 정성들여 가꾸신 밭인데 정말 감동입니다. 도로 옆 옥수수 밭이랑 작은 집을 보시면 저와 똑같은 감탄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아름답고 추억이 넘쳐나는 우리 동네 철암.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놀러오세요. 모두의 추억이 소중히 담긴 이 작은 동네를요.

아무리 글을 잘 쓴다고 해도 태백시의 철암의 아름다움을 전부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철암에 놀러 오시면 금방 알 수 있으실 텐데..

철암은 어떤 계절에 와도 상관없이 모두 아름답습니다. 나비가 날아다니는 봄, 숲의 나뭇잎이 무성해지는 여름, 불타듯 단풍이 드는 가을, 하얀 눈이 소복이 내리는 겨울까지 정말 여러 가지의 보석 같습니다. 시원한 산바람, 향긋한 풀냄새와 꽃냄새, 맑게 흐르는 철암천이 제가 어른이 되어도 지금 풍경처럼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철암이 너무 좋습니다. 아름다운 추억과 장소가 많거든요. 철암초등학교, 놀이터, 철암천, 구름다리 모두 어릴 적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중 등 부











## '우리 형' 을 읽고

철암중학교 1-1

한 규 빈

우리 형을 처음 읽었을 때는 왜 형이 동생 대신 엄마한테 맞았는지, 형이 했던 많은 선행들이 이해가 안 되고 왜 그랬는지 몰랐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잘 이해되지 않았고 이 이야기에 나오는 형, 동생, 엄마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했었다. 우리 반 전체가 함께 읽고 나서 토론을 하게 되었는데 먼저 각각 자기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들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주제를 이것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뤄졌다. 토론이라기보다 토의에 가까운 것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나는 이 토론을 통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었다. 소설 속의 주인공들의 심정, 마음 상태를 조금이나마 상상하고 느껴볼 수 있게 되었다. 형, 동생, 엄마는 그때 어떤 심정이었는지 왜 그렇게 행동하게 되었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특히 형이 왜 동생 대신 엄마에게 맞았는지 형의 선행들이 이해가 되었고 웬지 묶여 있던 끈이 풀린 듯하다 느낌이 들었다.

내가 토론하면서 친구들이 제안했던 주제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을 세 가지만 뽑아서 정리를 해 보았다.

일단 첫째로..

'어머니는 정말 동생보다 형을 더 좋아했을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고 물으면 쉽게 고르지 못하는 것같이 부모님들도 그럴 것 같고, 단지 형이 몸이 불편하니까 더 관심을 갖고 돌 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친구들의 의견은 다양했지만 나의 생각은 이렇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형이 죽었을 때 동생과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내 생각이기는 하지만 동생은 허탈하고 조금 형다운 죽음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다. 그리고 여태까지 못해줬다는 그런 일들이 떠올라 괴롭고 힘들었을 것 같다. 어머니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무 것도 하기 싫고, 아들을 따라 가고 싶다는 생각과 이젠 더 이상 웃지도 못할 것 같다는 생각도 했을 것 같다.

이제 마지막으로 ...

'나는 이 글의 형처럼 남을 위해 살 수 있을까?'

난 못 살 것 같다. 난 일단 욕심이 많다. 그래서 내 것을 빼앗기는 거 못 참고 주는 것을 싫어한다. 그리고 나눠 주는 것을 썩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지 난 내가 남을 위해 희생할 준비도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난 누구를 위해 죽으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난 만약에 한 아이가 내 앞에서 죽어간다면 멍하니 보고 서 있다가 죽고 나서야 죄책감에 시달릴 것 같다. 하지만 이젠 왜 그래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찾아 남을 위해 희생하고, 남을 위해 살고 욕심을 버리는 연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번 남을 위해 살고 싶은 작은 소망이 있다.







## '손도끼'를 읽고

철암중학교 3-1

원성일

소설 '손도끼'는 캐나다의 평범한 소년 브라이언의 표류를 주제로 한 소설이지만 소설 속에서 브라이언은 이혼한 부모님 중에서 어머니와 살고 있다. 하지만 며칠 동안 아버지와 생활하기 위해 경비행기를 타고 가다 조종사가 심장마비로 쓰러져 외진 숲의 호수로 추락한다. 더위와 갈증, 허기, 벌레들과 싸우던 초기의 브라이언은 은신처를 구하고 나무 열매를 발견하고 손도끼의 불꽃으로 불을 피움으로써 어느 정도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된 브라이언이지만 태풍으로 또 다시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처음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곧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무렵 태풍의 영향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비행기를 탐사한 브라이언은 신호발생기를 사용하여 구조된다. '손도끼'의 주제로만 보면 소설 '로빈슨 크루소'와 흡사한 듯하다. 하지만 '손도끼'는 무엇보다 무인도가 아닌 숲의 호수였고, 여러 장비들을 가지고 있었고 표류 기간이 길지 않았으며 특히 표류자가 십대의 어린 소년이였다. 하지만 소년은 매 순간마다 평소에 보아왔던 생존 방법을 이용해 위기를 넘겼고,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을 깨닫게 했다. 이 소설을 그저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나대로 풀이한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자연에 동화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나도 사람들 사이에서 벗어나 아무도 없는 숲 속에서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보고 싶다.





## 그 곳을 아시나요?

황지여자중학교 2-3

노 주 리

태백에 있는 절골 이라는 곳을 아시나요?

절골은 맑은 물이 흐르고 다이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깊은 물이 있는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운 곳이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모습도 과거로 끝이 났습니다. 현재의 비참한 절골의 모습을 보셨나요?

오투가 생기고 댐을 만들고 나서부터 절골의 모습은 점점 망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이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맑은 물들은 댐으로 인해 흐를 수 없게 되고 밖에서 보일 정도의 맑은 물은 공사를 하고 나서부터 이끼가 끼고, 더러운 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10년 전 까지만 해도 우리들의 놀이터가 되어 주었던 고마운 존재를 우리 인간이 배신을 하였습니다. 친구 같은 고맙고도 소중한 존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자연은 얼마나 아플까요?

우리 인간에게 얼마만큼의 배신감을 느끼고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자연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고 있나봅니다. 미안할 뿐입니다.

자연에게 우리의 터전에게 미안할 뿐입니다. 이젠 우리가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연에게 은혜를 갚고 다시 처음의 자연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태백은 볼 것 없는 조그마한 촌에 불과합니다. 도시에 비해 태백은 아무것도 제공해주는 것이 없지만 단 하나,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 자연 그대로의 아름답고도 깨끗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태백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 커다란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은 우리는 그 선물을 소중하게 간직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무



관심해지기 시작 하였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나 봅니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두고 도시로 변하기를 바라고만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시 도시로 만들어 놓으면 '아~옛날의 태백이 그리다' 하면서 다시 욕심을 사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이것이 아니라면 가장 비겁하고도 나쁜 '도시이지만 태백의 자연은 망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하실 건가요? 태백을 살리기 위해 조금의 노력도 하지 않았으면서 많은 욕심을 부리는 것은 가장 비겁한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태백은 보잘것없기 때문에 많은 것을 만들고 또 그것을 만들며 태백을 지켜가야 합니다. 태백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머니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더욱더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많은 곳이 망가지고 오염되고 있는 우리의 태백. 그러나 오염이 되는 만큼 우리의 태백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시골 같던 태백도 우리가 어른이 되어 있을 쯤에는 아마 도시로 발전되어 있겠지요? 우리의 후손에게 멋진 태백의 모습을 부여주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의 멋진 태백의 모습도 보여주고 싶지만요. 작년쯤에 태백의 관광버스가 다 찰 정도로 태백은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 태백이 어디가 좋아서 이렇게 관광지로 많이 놀러오는지 몰랐습니다. 산 밖에 없는 태백이 어디가 멋있고, 어디가 좋기에 이렇게 태백에 오고 싶어 하는지도 통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 태백이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그 이유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 때문 이였습니다. 이것을 느끼고 태백은 참 훌륭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오염시키고 있는데도 자연이 아직 망가지지 않고 곳곳이 지켜 나가는 훌륭한 태백이 자랑스러울 뿐입니다. 태백이 만질 수 있고 태백과 얘기할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얘기해주고 싶지만... 행동으로 하는 것이 태백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겠지요?

태백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어머니입니다. 태백 그곳을 아시나요?





## 행복에 이르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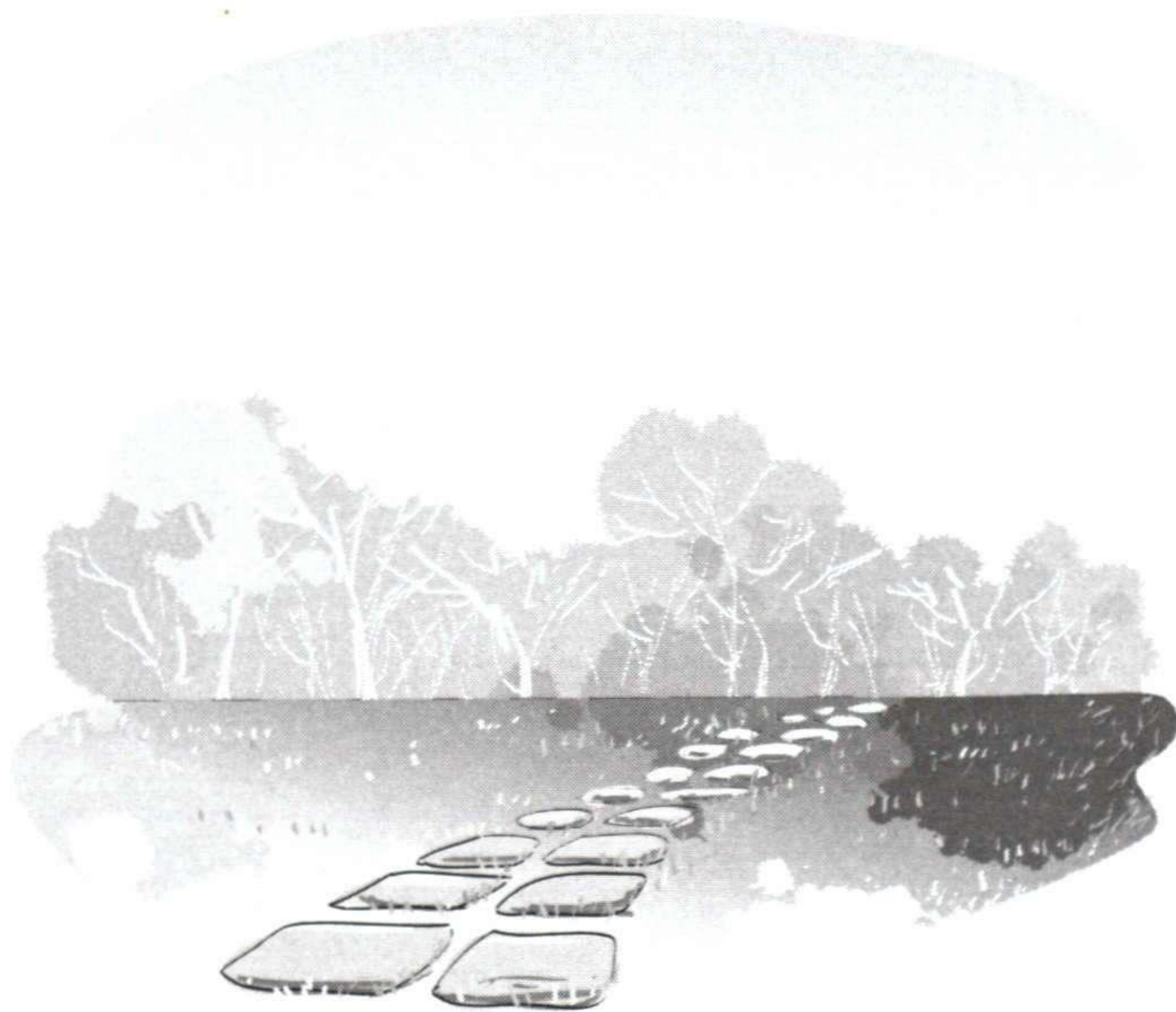
철암중학교 3-1

성 다 예

지금 나는 행복한가를 알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에게 공지영의 '즐거운 나의 집'을 추천하고 싶다. 즐거운 나의 집은 '위 념'이라는 딸의 시점에서 가족의 소중함과 행복에 대해 말하고 있는 소설이다. 이 책이 내 기억 깊숙이 자리 잡은 이유는 가족과 행복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던 고민을 풀어주는 실마리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주인공의 삶은 참으로 불행한 조건을 고루 갖추고 있다. 부모의 이혼, 아버지가 다른 동생과 갑자기 바뀐 생활환경 등. 위 념의 어머니는 그런 힘든 조건이지만 이에 연연해하지 않고 자신의 가족을 세상에 둘도 없이 행복한 가족이라 생각한다. 이 소설을 읽기 전까지는 적어도 우리 가족이 소설 속의 가족보다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즐거운 나의 집에서 가족의 의미는 아버지가 달라도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구절을 읽으며 진한 피로 맺어진 우리 가족을 생각했다. 늘 서로의 마음을 읽기보다 혈통고 무시하고 미워하는 나와 동생들과의 사이. 나는 이 책을 통해 가족을 더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가족이란 서로를 조건 없이 사랑으로 감싸주고 애해해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이란 것을 그리고 나는 조건보다 중요한 것이 나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성경 구절 중 늘 감사하라는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생각하게 되었고, 현재의 나는 늘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게 되었다. 이 글의 주인공 위 념을 비롯해 많은 등장인물들을 통해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이 시기에 읽었던 박완서의 '마지막 임금님'을 읽으면서도 행복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어리석은 임금님은 권력으로 행복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 어리석음으



로 끝내 죽음에 이르게 된다. 절대 권력을 가진 임금님이 부러워한 그 사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고 권력과 가족, 재산 모두를 잃고 나서도 행복했었다. '나도 가족을 다 잃고도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조건 없이 사랑으로 감싸주는 가족의 사랑이 뒷받침이 없다면 행복한 삶이란 가능하지 않다. 과연 나는 가족의 참 뜻을 알고 있는 걸까? 지금 가족과 행복의 의미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가? 다시 한 번 나에게 묻는다.







## 여행은 사람이다

철암중학교 3-1

김해성

여행의 시작은, 아마도 철암도서관의 김동찬 선생님께서 이번에 오신 '광활' 선생님 한 분이 도보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였다. 정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좀처럼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일찌감치 포기했었다. 이런 나의 사정을 아신 김동찬 선생님은 여행을 계획하신다는 정기인 선생님과 날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셨다. 같이 가기로 결정한 진이와 성일씨도 도와주겠다고 했다. 선생님과 친구들 그리고 나는 우리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이 편지였다. 왜 내가 이 여행에 참가하고 싶은지 어떻게 어느 곳을 여행할 것인지 진심을 담아 썼던 편지 덕분인지 아버지는 의외로 쉽게 허락해 주셨다. 나 혼자 괜한 걱정을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드디어 2011년 1월 19일!! 여행가기 하루 전날, 정기인 선생님과 나는 성일이네 집으로 갔다. 다음 날 아침에 함께 기차를 타기 위해 성일이네 집에서 함께 보내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편하게 여행을 가기만 하면 되는데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다. 진이가 감기에 걸려 같이 여행을 갈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진이가 같이 못 간 것은 너무 아쉬운 일이 었다. 진이와 함께 갔었다면, 더 활기차고 신나는 여행이 되었을 텐데 말이다. 아쉬운 마음을 접고, 여행 당일 성일이 어머님의 따뜻한 배웅을 받고, 태백역에서 2박3일의 짧은 여행을 위해 기차에 올랐다. 첫 목적지는 예전에 철암에 광활 선생님께서 오셨던 고은정 선생님이 살고 계신 청주!! 창밖을 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음역이 청주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 성일 이와 난 선생님께 다음역이 청주역이 라고 하니 정기인



선생님은 벌써 청주까지 오진 못했을 거라며 확인을 해본다고 하셨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청주가 아닌 충주였다. 하마터면 엉뚱한 곳에서 내릴 뻔 했다. 그렇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착한 청주. 고은정 선생님은 우리를 정말 반갑게 맞이해 주셨다. 손수 떡볶이까지 만들어 주시고 떠나올 때는 달걀도 삶아 주셔서 그 정성만으로도 배가 불렀다. 청주에서 버스를 타고 첫째 날 마지막 목적지인 공주로 달렸다.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기를 30분. 드디어 백제의 두 번째 왕성, 공산성에 도착했다. 공산성은 오른쪽 성벽을 타고 올라가야지만 공주 시내와 공산성 안쪽을 모두 볼 수 있다. 다음은 공주 박물관, 무거운 짐을 보관함에 넣고 단말기를 대여해 박물관을 구경했다. 단말기를 들고 알고 싶은 문화재 앞에 가면 단말기에서 설명이 나왔다. 구경을 끝내고 소지품을 찾기 위해 보관함의 열쇠를 넣어 돌리고 문을 당겼는데 열리지가 않는다. 문이 고장 난 것이다. 우리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다행히 박물관 남자 직원분이 문을 뜯어내고서야 짐을 꺼내 주셨다. 참 고마우신 분이다. 첫날의 여행 일정을 끝내고 공주 세광교회로 가기 위해 가까운 버스 정류장을 찾았다. 공주 세광교회는 성일이네 아버님의 친구인 이상호 목사님이 계시는 곳이다. 공주에서 잘 곳이 없던 우리를 흔쾌히 재워주시겠다고 하신 분이다. 공주 세광교회는 공주 시내에서 꽤 멀기 때문에 몇 번이나 버스를 갈아타야 했다. 버스에서 내린 곳은 정말 깜깜했다. 안쪽으로 20분 정도 걸어서 들어가서야 교회가 나타났다. 숙소를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무슨 호텔에 온 것 같았다. 정말 크고 멋진 집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따뜻한 방에서 편하게 잘 수 있었다. 다음 날, 우리는 목사님 부부로부터 생각지도 않은 큰 선물을 받게 되었다. 부여로 가는 길에 쉬면서 먹을 수 있는 주먹밥과 장아찌를 주셨다. 굶자고 결심했었는데, 이렇게 걱정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제 드디어 우리 여행의 가장 큰 고비, 공주에서 부여까지 걸어가는 것이다. 이상호 목사님은 공주에 왔으면 '이것'을 꼭 보고 가야 한다며 우리를 '이것'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셨다. 우리는 '이것'이 무슨 중요한 문화재인 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4대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공주보'였다. 공사 현장은 처참했다. 더러운 흙탕물이 아무렇지 않게 폐수와 섞여 흘러 내려가고 있었다. 이상호 목



사님은 이 모습을 꼭 기억해 두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우린 걷기를 시작했다. 목적지는 부여의 백제 문화단지였다. 28km의 거리였다. 아름다운 자연을 느끼며 걸을 수 있기를 기대했는데, 보이는 건 오직 4대강 공사 현장과 흙먼지 밖에 없었다. 이렇게 황량한 길을 걷고 싶었던 게 아니었다. 계절이 겨울이라 푸르고 상쾌한 길을 기대하진 못하지만, 적어도 하얀 눈발 밑에 돌아나는 새 생명의 기운을 느끼고 싶었기에 이곳을 걸어가고 싶었던 것이다. 어쨌든 걷고 또 걸었다. 우린 잠시 쉬면서 주먹밥도 먹고, 간식으로 초코파이도 먹으며 부여에서의 첫 목적지인 백제 문화 단지에 도착했다. 백제 문화단지는 옛 백제문화를 재현해 놓은 우리나라 최초의 시설이다. 개방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시설도 괜찮다는 말을 듣고 여행 계획을 넣었다. 지금 생각하면 약간 아쉽다. 입장료도 비싼데 시간에 쫓겨 다 구경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입장료는 학생 7천원, 성인 9천원, 총 2만 3천원 이었다. 좀 비싼 입장료에 비해 허술한 점이 없지는 않았다. 겨울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다. 황량하고 텅 빈 듯 하다는 느낌.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만한 곳은 아니었다. 백제 문화단지를 구경한 후에 선생님이 정해 둔 숙소인 부여 크리스탈 모텔로 갔다. 그곳의 아주머니는 정말 친절하신 분이였다. 인원 3명에 4만 5천 원 하는 온돌방을 4만원으로 저렴하게 주셨고, 저녁을 지어 먹어야 하는 우리에게 부엌을 쓰도록 허락해 주셨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우리의 저녁 반찬이 부족할까봐 콩나물 무침도 주셨다. 아주머니 덕분에 우리는 밥, 라면, 참치, 김, 달걀, 거기다 콩나물 무침까지 여행의 마지막 만찬을 즐길 수 있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크리스탈 모텔은 '굿스테이' 제도에서 합격점을 받은 모텔이었다. '굿스테이' 제도란 한국관광공사가 일반적인 숙소(모텔, 여관 등)에 우수하고 좋은 서비스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여행을 갈 때는 이 '굿스테이'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 제도가 있는 것도 몰랐지만, 어쨌든 운이 좋았던 까닭에 성일이와 나는 방 안에 있는 컴퓨터로 게임도 실컷 했다. 다음날 새벽, 정기인 선생님이 우리를 깨우셨다. 부소산성에 가보자는 것이다. 성일 이는 너무 피곤하다고 좀 더 자고 싶다고 해서 결국 선생님과 나만 부소산성에 갔다. 부소산성은 9시가 되어서야 문을 여는데 우리는



너무 일찍 가서 인지 무료로 볼수 있었다. 낙화암에 올라가니 어떻게 3천명이나 되는 궁녀들이 이 좁은 곳에서 다 뛰어 내릴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것이 지금도 풀리지 않는 숙제다. 풀리지 않은 의문을 뒤로한 채, 아침 9시 선생님과 나는 숙소로 돌아왔다. 버스 시간은 11시이다. 우리는 정말 급하게 준비해서 잊어버린 것 없는지 다시 확인하고 숙소를 나섰다. 선생님은 지금 가면 시간이 남을 거라며 부여 박물관을 보고 가자고 하셨다. 뭐 우리야 좋았다. 버스만 안 놓치면 말이다. 그런데 박물관이 어디였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 이곳저곳 돌아다니다 30분을 소비했다. 겨우 찾아내어 들어가 20분 만에 전시실 2곳과 체험실 1곳을 구경했다. 순조롭게 여행이 끝나가나 하던 그 즈음, 또 난관에 봉착했다. 우리는 부여 박물관에서 부여 버스터미널까지 가는 길을 몰랐다. 어떻게 할까 난감한 얼굴로 의논하던 우리에게 천사가 나타났다. 부여 박물관의 여직원 한분이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셨다. 덕분에 우리는 버스 출발 30분 전에 도착해서 햄버거도 사먹는 여유를 부릴 수 있었다. 버스를 타고 원 없이 잔 것 같다. 2시간 지나 도착한 청주에서는 기차를 타고 제천까지 가기위해 1시간 30분을 기다려야 했다. 뭐 할까 고민하던 중, 내가 PC방에 가자고 했다. 선생님은 청주를 구경하고 싶다고 하셔서 성일 이와 나만 PC방에 가기로 하고 1시간 후에 선생님께 전화를 드리기로 하고 헤어졌다. PC방에서 실컷 놀고 선생님과 다시 만나 남은 20분 동안 청주역으로 가려는데 우리는 또 길을 몰라 헤매다가 이번에는 관광안내소에 들어갔다. 정말 아름다우신 여직원분이 우리를 도와 주셨다. 그 덕에 무사히 청주역에서 기차를 타고 제천으로 떠 날수 있었다. 오후 4시, 우리는 제천에 도착했다. 제천에 오자 우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기억났다. 제천에서는 명물 칼국수를 먹어야 한다는 말씀이었다. 우리는 즉시 칼국수 집을 찾아보았다. 그리고는 '시골장칼국수' 라는 인심 좋아 보이는 칼국수 집에 들어갔다. 역시 이름만큼이나 인심도 좋았다. 3인분을 시켰는데 솔만큼 큰 대접에 칼국수를 가득 담아 주셨다. 그것을 셋이서 다 먹고 또 공기밥도 시켜서 먹었다. 입이 호강했다. 특히 김치와 깍두기는 황홀할 정도의 맛이였다. 어쨌든 우리는 배를 채우고 마지막 목적지 이자 여행의 종착역인 태백으로 출발했다. 태백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는 딱히 특별



한 에피소드가 없었다. 그저 처음으로 가 본 열차카페가 기대만큼 좋아보이지는 않았다는 것 밖에 말이다. 그래서 그냥 자리에 앉아 우리의 여행을 가만히 생각해 보기로 했다. 우리의 여행은 성공이었을까? 아님 실패였을까를.. 쉽게 답을 내릴 수가 없었다. 사람을 만나고 문화를 배우는 여행의 목적을 생각해보면 우리의 여행은 대 성공이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보지 못한 것도 많았고, 하지 못한 것도 많았으니 실패 일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내 마음 속 추억으로 간직된 소중한 것들이 많으니, 성공적인 여행이라고 할 수 있다. 여행은 평생의 추억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사람을 만나 행복했고, 도움을 받아 감사했다. 역사와 문화적인 지식만을 배우려는 여행이었다면 이런 생각을 갖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이 여행에서 배운 또 하나의 가르침은 인간과 자연에 대한 것이다. 공주에서 부여까지 가는 길에 우연히 4대강 사업 홍보관을 보게 되었다. 그 곳에 들어가 보니 4대강 공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 진행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결과에 대해 체계적으로 적혀 있었다. 하지만 공사 현장을 직접 본 나로서는 그 말을 다 믿을 수 없었다. 오물이 흘러나오는 더러운 강, 흙탕물로 더럽혀져 아무 생물도 살지 못하는 강을 봤던 나에게 그 말은 위선과 거짓말처럼 들렸다. 취지는 좋은데 방식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태백에 도착했다. 2011년 1월 22일, 내 생에 가장 소중한 첫 배낭여행이 끝이 났다. 겨울의 바람은 차지만, 내 마음에는 봄기운처럼 따뜻함이 감싸고 돌아왔다. 난 이 여행을 할 수 있게 해준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 고 등 부











##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은

장성여자고등학교 3-5

이 한 솔

아마 며칠 전 3교시쯤이었을 것이다. '적분과 통계' 수업을 듣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보게 되었다. 푸른 하늘과 높은 산. 눈을 잠시 정화하고 다시 수업을 들으려고 하는데 내 눈길을 끈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창틀에서 기어 다니고 있는 무당벌레였다. 벌레라면 딱 질색이라 소름이 돋았지만 자세히 보니 무당벌레가 뭔가 이상했다. 날아가려고 열심히 날갯짓을 하었는데 조금 푸드덕하다 금세 떨어졌다. 게다가 날개가 등에 다 들어가지 않고, 제대로 기어 다니지도 못하였다. 하지만 그 무당벌레는 무엇인가를 열심히 가지고 이동하였다. 떨어지면 다시 그곳으로 가서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어딘가로 가고 있었다. 그러다 결국 한 아이의 발에 밟혀 죽었다. 나는 그때 생각했다. 한날 조그만 무당벌레도 무엇인가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구나..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나 부를 가진 사람들을 일컫는 게 아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무엇인가의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다. 나는 [현장르포 동행]이라는 프로를 즐겨본다. 예전에 한번 환경미화원의 삶을 본 적이 있다. 흔히들 환경미화원이라 하면 힘들고, 더러운 직업이라 여기고 기피하는 경향이 많다. 또한 매일 남들이 자는 시간에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렇다고 수입이 많은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 분들은 찡그린 표정하나 없었다. 오히려 '나로 인해 거리가 깨끗해지고, 우리나라가 깨끗해지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껴요.' 라고 말했다. 이것을 보고 이것이 진정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고 또 한 번 나 자신을 반성해 보게 되었다. 가끔 TV를 보다보면 기업의 돈을 빼돌려 자신의 돈으로 만든 사람들도 있고, 불법 자금을 조작하여 해외로 도피한 사람들도 있다. 이들에게 삶의 의미는 돈 일까? 사람들은



· 대개 돈을 삶의 최종목표로 두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요행을 바라기도 하고, 해서 안 되는 짓도 하기도 한다. 물론 돈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이다. 하지만 돈보다도 더 궁극적 목표는 삶의 의미에 있다. 돈과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다른 것이다. 나 역시 지금의 나의 위치에서 충실히 무엇인가를 위해 열심히 살아갈 것이다. 그 무엇인가가 지금은 수능이겠지만, 나중에 대학가고 사회인이 되면 또 다른 의미 있는 일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 느껴지는 마음

장성여자고등학교 3-6

이 상 희

드넓은 하늘 속 흰 구름..

반짝이는 별에는 비밀이 많다. 소원도 들어주고, 친구도 되어주고, 말동무도 되어주고...  
마음속 답답한 이야기를 다 털어놔도 새어나갈 염려없다.

오히려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나의 하늘에는 우리 오빠가 있다.

어렸을 적 나를 예뻐 해주던 개구쟁이 오빠..

오빠는 날 잘 돌봐 주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 심장 기형처럼 태어났기에.. 잘 뛰지도, 걷지도,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었기 때문에 밖에 나가는 것은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그런 나를 안고서 꽃구경, 하늘 구경, 바다 구경을 시켜 세상과 만나게 해주었다. 그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며 아파서 울고, 병원에 있는 시간보다 웃고 떠들며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렇게 나는 기형적으로 태어났지만, 정상적으로 지낼 수 있게 되었는데, 나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낸 오빠는... 나를 구경시켜주던 하늘의 구름과 별, 바람이 되어 가버렸다. 내가 아팠던 만큼 '백혈병' 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려서..내가 학교 다니고 뛰어다니고 친구들과 노는 것을 보고 싶어 했던 오빠가..

더 이상 옆에서, 내 곁에서 응원해주지 못했다. 그 자리, 마음의 자리는 영원히 비워져 있게 되었다. 그래도 나는 하늘과 구름과 바람과 친구가 되면서 오빠와 대화를 한다. 오빠한테 투정도 부리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하루 이야기를 기계적인 로봇처럼 주거나 받거나 하면서 이야기 한다. 그럴 때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똥별 하나, 빛 한번, 약한 바람, 센 바람, 이슬비, 소나기, 새털구름, 솜털구름에 따라 오빠의 응답을 듣는다. 힘들다며 투정부리며 울고 있을 땐 약한 바람으로 어루만져주고, 책상 앞에서 졸고 있을 땐, 센 바람으로 창문 소리



에 잠 깨도록 해주고, 덥다고 투정부리며 시원하라고 비 뿌려주고.. 모든 게 나를 위로하고 사랑하기에 느껴지는 감정 들이는 것 같다. 벌써 오빠가 하늘이 되어 버린 지가 어느덧 10년 가까이 되어가지만, 아직까지 나의 마음속에는 옛 모습, 옛 웃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아프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넌 웃는 게 예쁘니까 많이 웃어 알았지? 너는 뭐든지 다 잘 할 거야. 오빠는 널 믿어" 하는 오빠의 힘찬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하늘을 보며 그리운 마음을 담아 오빠를 불러 본다.







## 검은 자식과 부모님

황지고등학교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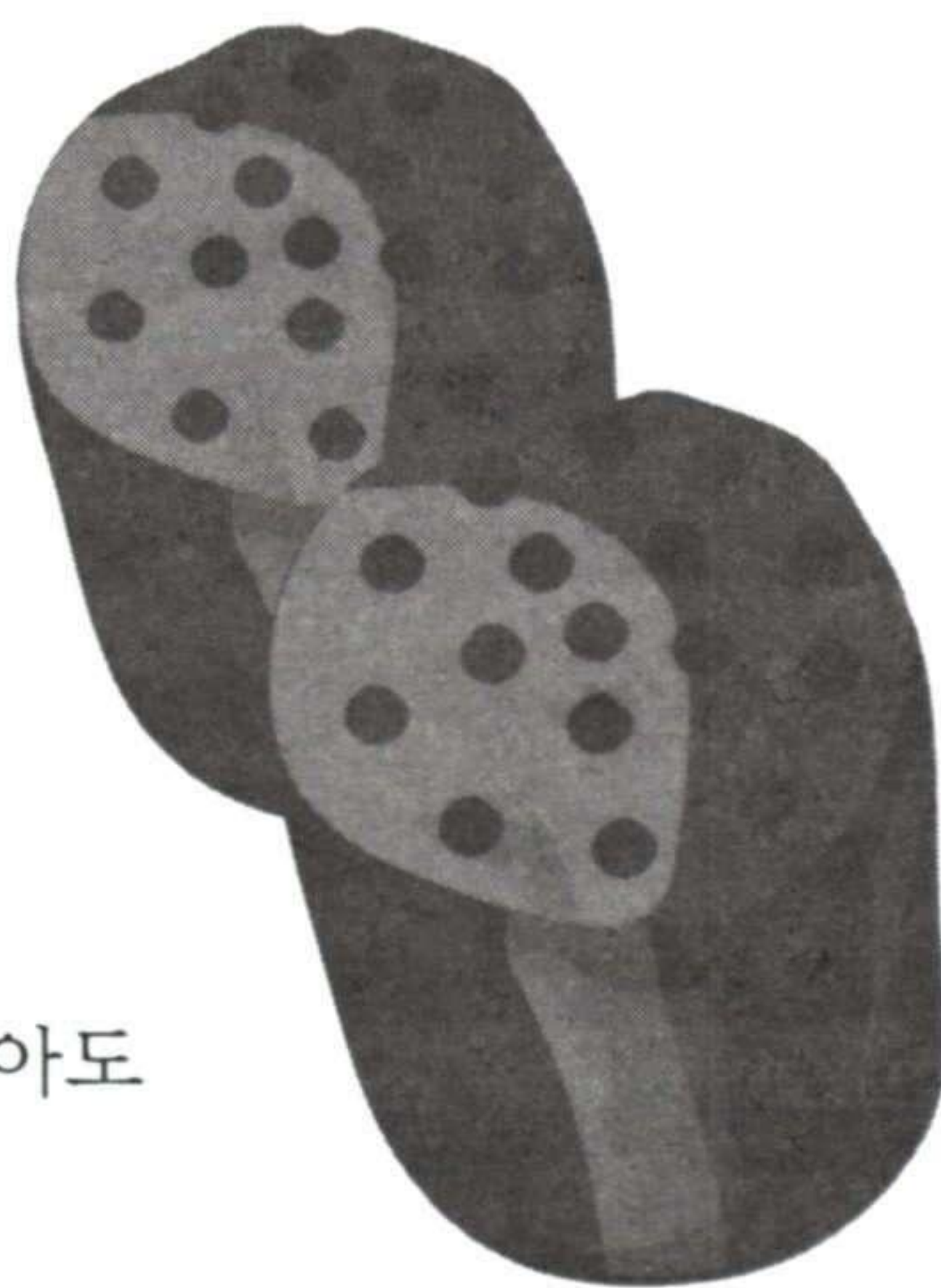
김 태 기

깊은 어둠에서 빠져나오신 아버지 얼굴에는  
 검은 것들이 가득하고  
 바닥만을 바라보며 일에 열중하시던 어머니 손에는  
 검은 것들이 가득하고  
 아버지의 작업노트에 가득한  
 어머니의 가계부에 가득한  
 검은 글자들을 본 나의 눈시울에는  
 투명한 것들이 가득하다.

아, 아버지..

아, 어머니...

검고 애달픈 것들이 그대들의 그것을 붙잡아도  
 투명하고 짜디 짠 바닷물로  
 그대들의 검은 가슴을 씻기려는  
 그대들의 작은 가슴을 씻기려는  
 이 못난 자식의 손을  
 애써 외면치 마소서..







## 철 암

황지고등학교 2-2

원형일

연탄재 훑날리는 거무스름한 길  
할머니들이 힘겹게 걸어 다니고  
커다란 트럭들이 질주하는 곳

건물들은 낡고 헤져  
이제 철거되기만을 기다리고

아이들은 멀리 떨어진  
학교까지 터벅터벅 걸어간다.

잎이 떨어진 회색빛 나무들은  
항상 그 자리 그대로 박혀있고

할아버지들은 실 곳이 없다

그러나,

조금만 더 있어봐라  
여름이 되어 잎이 나고  
가을이 되어 단풍이 들면

이곳보다 화려한 곳이 어디 있으랴







## 자연이란 이름의 연극에서

장성여자고등학교 2-3

심정희

자, 들어봐.

여기에 자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연극이 있어  
 그리고 그 연극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역할은  
 연출자도,  
 주인공도 아니야  
 단지 관객일 뿐이지  
 그리고 우리는 결코 그 사실을  
 간과해선 안 돼.  
 우리는 마치 우리자신이  
 연출자나  
 주인공일거라고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잊지 마..  
 우린 그저 관객일 뿐이라는 걸

자연이란 이름의 연극에서..





## 그때도 알았더라면

장성여자고등학교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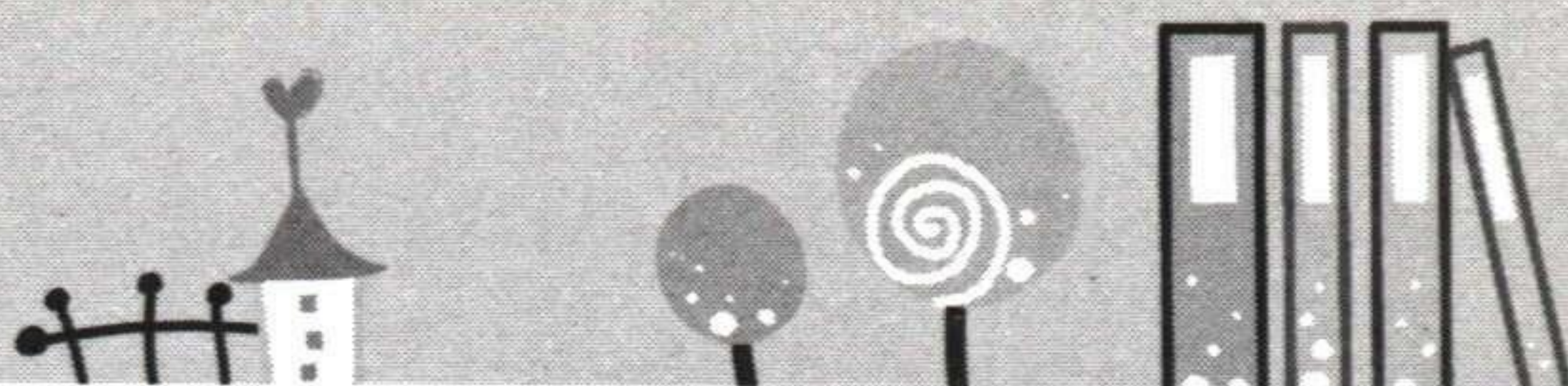
이 수 미

몇 달 동안 병원에서 지내시다 퇴원하신 할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많이 건강해지신 할머니의 힘 있는 목소리에 기분도 좋고 반가웠지만 편찮으시기 전까지 같이 지냈기에 귀찮은 마음에 동생에게 전화기를 넘겨주었다. 그리고 다음날 잠깐 외출했던 아빠에게 씻고, 밥 먹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전화가 왔다. 장성중앙병원 장례식장 백합실.. 그 전화 한 통화가 할머니의 마지막 목소리였다는게 믿을 수 없었다. 동생이 할머니한테 빨리 집에 오시라고 했는데.. 영안실 안에만 있는 게 너무 답답해 친척과 함께 바람을 쐬러 나가다가 영안실 입구에 붙여진 종이 한 장에 발걸음을 멈추었다. '故' 라는 익숙한 한자 뒤에 쓰인 할머니의 성함과 상주 이름에 우리 아빠의 이름과 작은 아빠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걸 보고 나서야 '진짜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밥도 잘 드시고 건강하셨는데.. 할머니 영정 사진만 계속 보았다. 아침 일찍 이모할머니들께서 오열을 하며 장례식장에 오셨다. 오전 10시쯤에 할머니 입관식이 있었다. 어른들은 우리가 입관식 보는 걸 원하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마지막이니깐.. 차갑게 식어 누워있는 할머니를 보자 또 한 번 터진 눈물에 얼굴이 따끔 거렸다. 1시간 조금 넘게 걸린 입관식을 보면서 할머니에게 계속 말을 걸었다. " 할머니 내 말 들리면 꼭 들어, 이젠 아프지 말고 거기 가서 좋은 사람들만 만나. 그리고 빨리 나아서 우리 밥해줘야 된다고 해놓고 이렇게 가면 어떡해..." 그 1시간이 얼마나 짧게 느껴지던지.. 왜 일까? 입관식 이후로 할머니 영정사진을 보는 게 너무 힘들다. 입관식 때 받은 할머니의 마지막 용돈 3만원을 내 바람막이 주머니에 넣고 주머니 지퍼를 올렸다. 혹시나 잃어 버릴까봐 손이 시려도 오른쪽 주머니에는 손을 넣지 않았다. 그리고 그 '마지막 용돈'을 보는 게 영정 사진을 보는 것만큼 힘들었다. 눈 한번 붙이지 않았지만 피곤



하지 않은 셋째 날. 할머니 하관식이 있는 날이다. 우리 집 옆에 있는 할아버지 묘와 합장을 하는데 기온이  $-20^{\circ}\text{C}$ 까지 내려갔다. 차에 시동조차 걸리지 않아 겨우겨우 출발하여 하관식을 하러 집으로 가는 50분 내내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고 우리 집이 보였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할머니가 편안히 쉬실 할아버지의 묘를 보니 또 눈가가 뜨거워 졌다. 하관식을 하기 전 준비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뽁뽁 얼은 손발을 녹이는 동안 난 내 방 책상 의자에 앉아 혼자 생각했다. '내가 지금 후회를 하고 있는 거구나.' 평소 할머니의 걱정스런 마음이 담긴 말씀이 항상 귀찮게 들리고 짜증나서 내 입에서는 항상 못된 말들만 툭툭 튀어나가곤 했다. 뒤늦은 후회로 눈물 흘리는 것은 미련한 것이라 예전부터 느껴왔지만 바보 같이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소리 내어 울고 말았다. 피아노 의자에 기대 서럽게 울다가 갑자기 또 실감이 나지 않아 눈물이 저절로 멈추었다. "할머니 어디 있어? 할머니한테 가자!" 사촌친구랑 같이 밖으로 나갔는데 상이 차려져 있고 할머니의 영정 사진이 있기에 아무 생각 없이 추위도 잠시 잊고 사진만 보고 있다가 잠시 후 하관식을 하였다. 오른쪽 주머니에는 여전히 마지막 용돈 3만원이 있어 주머니에 손도 안 넣고 있었더니 친척언니가 장갑을 건네주었다. 꽤 따뜻하게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운 날씨와 바람 탓에 벌벌 떨며 하관식을 지켜보았다. 하관식을 하는 내내 관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이젠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추운 날씨에 눈물도 얼어 버렸나보다. 잘해드리진 못하더라도 그렇게 짜증내고, 못 되게 굴면 안 되는 것 이었는데.. 왜 그때 그걸 몰랐는지.. 하관식 이틀 후 탈상을 하였다. 할머니가 쓰시던 물건들을 태우고, 할머니의 옷들도 태우고, 모든 걸 활활 태워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날려 보냈는데 진작 잘해드리지 못한 나의 불편한 마음만 가슴 속 깊이 무겁게 자리 잡고 있다.





한국예총 태백지회장  
전은영

**태백**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태백을 알게 하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키워주기 위한 꿈나무 공모전이 예년에 비해 많은 작품들이 출품되어 심사위원  
장으로서 자긍심을 느낍니다. 자유주제로 모집된 이번 공모전에는 상당히 수준 높은 작품들  
이 몇몇 보여 심사위원들이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심사의 기준은 “답게” 였습니다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답게

중학생은 중학생 답게

고등학생은 고등학생 답게..

시는 시답게 수필은 수필답게 함축과 운율을 배우지 않은 학생들이 산문처럼 쓴 작품이 시  
로 제출된 경우도 있었으며 산문에 인터넷에서 베낀듯한 문장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작품들은 모두 심사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시는 아름다운 함축 언어의 예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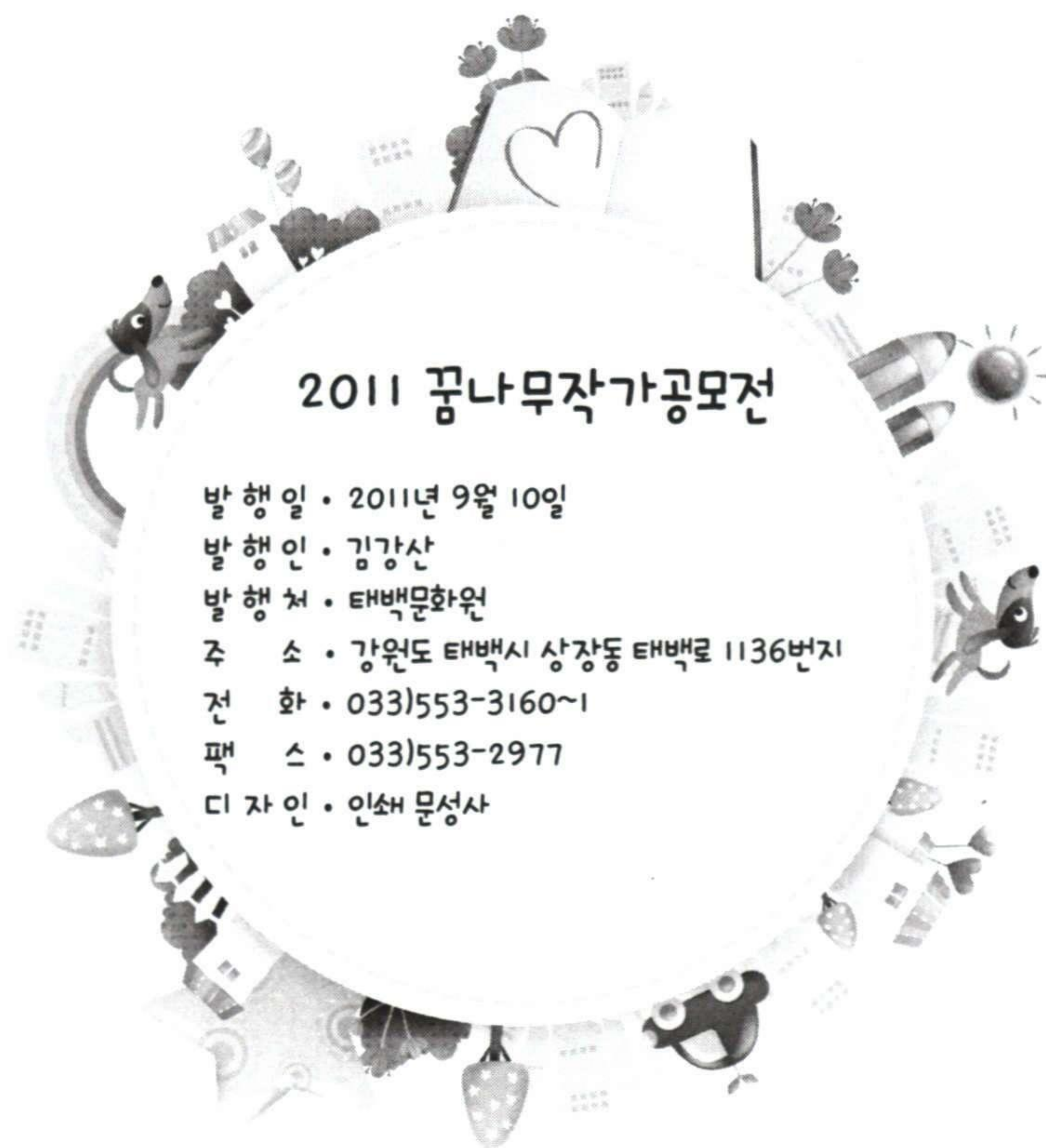
산문은 사물을 바라보는 작가의 고운 심성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독서 감상문은  
책을 보고난 후 읽은 이의 소감이 잘 드러나 있어야 합니다. 일부 작품에서는 의성어와 의태  
어로 작품성을 쇠락 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초등저학년 부문의 최우수상을 수상한 권주은 양은 작품의 완성도는 부족하지만 장미를  
바라보는 초등학생다운 기발한 발상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고등부의 장성여고 "열심히 살아 간다는 것은" 이란 작품은 어린 학생의 작품으로 보기에  
는 높은 완성도와 관점의 발전을 보여 심사위원들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앞으로 이번 공모전의 타이틀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가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 비매품 |

이 책은 태백시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